

지역 매아리



부안 행안면, 오복마실축제 마을지도자 토론회

부안군 행안면(면장 김남철)이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및 페레이드 진행에 대해 지난 23일 면사무소에서 27개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등 마을지도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마을 지도자들은 페레이드 주민참여와 페레이드 구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장들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축제를 즐겨야 관광객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며 "페레이드를 진행할 때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는 한편 흥겨운 춤으로 흥을 돋우고 관광객이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남철 행안면장은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지도자 임들께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며, 마을지도자님들께서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며 "부안 오복마실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진입하려면 금년 부안 오복마실축제를 온 군민이 참여해 마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경찰서, 비위 예방 앞장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제) 청문감사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비위를 비롯 각종 무위 위반예방을 위해 소그룹(계·팀)별 내부고발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의무위반 행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열한 자기관리와 동료들 가족이라 여기고 돌려대고 법령과 절차 업무를 습관화하여 비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제 서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행동을 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사명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를 통해 비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악취 발생 시설 점검 강화

정읍시, 기동반 운영 축사 등 악취 발생 사업장 지속적 확인 · 점검키로

정읍시가 봄철을 맞아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내에는 모두 200개소의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이 있다. 이중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16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 13개소, 폐기물 처리사업장 4개소, 비료생산업 18개소 등이다.

시는 점검 강화를 위해 생활 악취 기동반을 운영, 축사 등 악취 발생 사

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를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악취 발생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가축분뇨 유출 행위와 하천·수로 주변 축분 아적 행위, 미 부속역

비실포 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그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오염도 검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9개소를 시법기관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했고, 축사 운영자 등 관련자 교육과 악취저감을 위한 홍보 활동도 주력적으로 펼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무기 해양 종사자 사고 예방 주의 해야”

부안해경, 사고 다발 해역 경비함정 배치 · 안전순찰 강화 등 해양안전관리 온 힘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의 일교차가 큰 인구가 많은 시기에 관해 해상을 드나드는 해양 종사자들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년 서해안은 남서쪽의 온난 다습한 공기가 비교적 한랭한 해면 위로 불어오면서 바다 인구가 집중되어 국지적인 농무기 자주 발생하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더욱 나빠지는 시기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동안 휴

업 선박들이 봄철을 맞아 조업량이 증가하면서 충돌·전복사고 등 인명·재산피해와 직결 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다음달부터 행락철을 맞아 낚시꾼·레저객·유도선 이용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 다발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방파제, 갯벌, 갯바위 등 위험지역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시정현안 협업회의’ 가져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정현안 협업회의’를 가졌다.

시정현안 협업 회의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는 청사 리모델링과 말산업 발전, 대표 관광지와 문화 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국·단·소장, 직속 실·과장, 관련 13개부서는 이를 주제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정현안 협업회의’는 기존 5대 과제(악취근절 대책, 축산폐기물, 옥정호 용역, Eco축산 청정정읍 조성, 정읍첨단과학산업 미래비전 2030)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요사업 협업IT팀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집단지혜의 발현이 예상되는 각

종 인허가 사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기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업무 등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정읍시 전부서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협업정책이다”고 밝혔다.

김시장 권한대행은 “협업과 소통은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키워드”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시정현안 협업회의는 각종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정현안 협업회의를 정례회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 누수 없이 시정을 운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 중 하나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50억원을 지원하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수면에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일자리 지원센터 등과 같이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체육센터가 조성되어 군민 체육복지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체육복지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손 씻기의 중요성 · 올바른 방법 교육 정읍시보건소, 손 씻기 뷰박스 대여

정읍시보건소가 지역 내 어린이 집과 지역이동센터, 병원을 대상으로 연중 손 씻기 교육용 뷰박스를 대여하고 있다.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개인위생 관리 능력을 높이고, 단체생활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뷰박스는 형광물질 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박스의 검사 스크린에 넣으면 형광 물질이 하얗게 보이는 기구다.

형광 로션을 먼저 또는 세균이라고 가정, 평소 습관대로 손을 씻고 나서 세균이 얼마나 제거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수칙으로, 손 씻기 만으로도 각종 감염병의 50%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여 기간은 최대 1주일이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 감염관리팀(☎063. 539-61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클린 · 정책선거 선언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학수 도의원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기 위해 지난 23일 제10대 도의원을 사직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목표로 클린·정책선거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정읍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클린·정책선거 선언과 동참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년, 제10대 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4년의 재선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 감수성’을 실천하며 성숙된 정치역량을 키웠다.

특히 제10대 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장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행정과 농업·농촌의 현실, 융복합 6차산업, 미생물·바이오산업 등을 두루 살펴본 정읍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안목을 쌓아왔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정정당당한 ‘클린·정책선거’를 선언했다.

여론왜곡, 금품형용 제공, 허위사실

유표 등 흑색선전 행위를 근절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이다.

정읍시장 선거에 12명의 후보가 나서면서 악성투표가 기승을 부리고 경쟁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